

“美 ‘최정예’ 82공수사단 선발대 1천명 중동투입 초읽기”

“트럼프 승인 떨어져” 하르그섬 침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천명 이상의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의 중동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또 CNN 방송은 82공수사단 소속 1천명 규모의 병력이 중동지역에 실제 투입되는 시기는 '향후 며칠 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브랜든 텍트마이어 사단장(소장)이 이끄는 82공수사단 중 육군 신속대응군(IRF)으로 활동 중인 제1전투여단 소속 대대가 포함된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전날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최정예인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과 사단본부 인원 일부를 이란 작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IRF는 명령 즉시 몇 시간 안에 작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미군이 중동지역으로 이동 배치 중인 지상군 중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기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개의 해병원정대 소속 5천명에 가까운 병력이 군함을 타고 중동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 와 별도로 82공수사단 소속 3천명 중 선발대의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82공수사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지난 2020년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이 미군에 의해 제거된 직후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지는 폭격에 파손된 건물 24일(현지시간) 텔아비브 동쪽 외곽 브네이브라에서 포탄 공격을 받아 파손된 건물 옆에 보안군과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다. 중동 지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격으로 촉발된 보복성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고 CNN은 전했다.

이후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동유럽 전선 방어 등에 투입된 적이 있다.

82공수사단이 공중을 통해 침투할 곳으로는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뤄지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4일 이 섬의 군사 시설 90여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그 섬을 제거할 수 있다”고 19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면서 종전 협상의 진전을 시사했지만, 이와 동시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도 채비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美 라과디아 공항 충돌 당시 활주로 경보시스템 미작동

활주로 진입 승인받고 횡단하던 소방트럭, 위치발신장치 미탑재

지난 22일 밤(이하 모두 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당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적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제니퍼 호먼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이 24일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호먼디 위원장은 차량들이 활주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감시 시스템에 의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객기와 충돌한 소방 트럭에는 관제탑에 차량 위치를 알리기 위한 위치 발신 장치가 탑재돼 있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소방 트럭에 위치 발신 장치를 다는 것은 연방항공청(FAA) 권고사항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호먼디 위원장은 “관제사들은 모든 정보를, 일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가져야 한다”며 “지상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정보를 가져야 하며, 그게 항공기건 움직이는 차량이건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호먼디 위원장은 사고 당시 공항 관제탑 내 유리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관제사 2명만 근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작업자들이 이보다 이틀 전에 발생한 활주로 충돌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표준운영절차가 FAA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NTSB의 항공 관제탑이 수년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관제사 간 업무 분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트럭 진입을 승인한 관제사가 사고 직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발한 캐나다익스프레스 항공 소속 봄바디어 CRJ-900 여객기(항공편 ACA836)가 22일 오후 11시 45분께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항공기 구조용 소방 트럭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연합뉴스

中 쓰촨성서 ‘세계 2위 규모 경희토류’ 광구 확인

미중 간 산업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여파로 중국 희토류 자원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에서 세계 2위 규모 매장량의 경(輕)희토류 광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는 최근 쓰촨성 x닝 현 마오뉴핑 광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희토류 산화물(REO) 968만5천600t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마오뉴핑 광구에서 확인된 희토류 산화물 매장량이 300% 넘게 증가, 중국 내이명구 자치구 바이윈어보 광상에 이어 세계 2번째 경희토류 광구가 됐다

이곳에서는 할로겐 광물인 형석(플루라이트) 2천713만5천400t, 황산염 광물인 중정석(바라이트) 3천722만7천700t도 함께 확인됐다. 형석·중정석은 희토류 광산에서 함께 나오는 광물로, 형석은 공업용 불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희토류는 중(重)희토류와 경희토류로 나뉘며 첨단기술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연합뉴스

스페이스X, 이번엔 이번주 기업공개 신청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이자 율해 기업 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스페이스X가 이번엔 이번 주 상장 절차의 첫 단추를 끼운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에 IPO를 위해 규제 당국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투자설명서 제출은 IPO를 진행할 때 필수적인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규제당국의 질의·수정을 거쳐 로드쇼를 진행하고, 공모가를 확정해 상장한다.

최근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1조2천500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최종 기업가치 평가는 IPO를 몇 주 앞두고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트럼프 “이란, 우리에게 선물 줬다...석유·가스 관련”

이란수뇌부 제거 거론 “정권교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서식에서 기자들에게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뭔지 당신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질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석유·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것

(선물)이 내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이란에) 더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그들’은 맥락상 이란 정부 또는 지도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자신이 협상 중이라고 밝힌 모종의 다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만시워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윙코프 중동특사가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라며 “(미사일) 한 발이면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협상 중

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요구조건에는 “최우선, 둘째, 셋째 모두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다. 이제 우리는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